

예술가 박혜수 비평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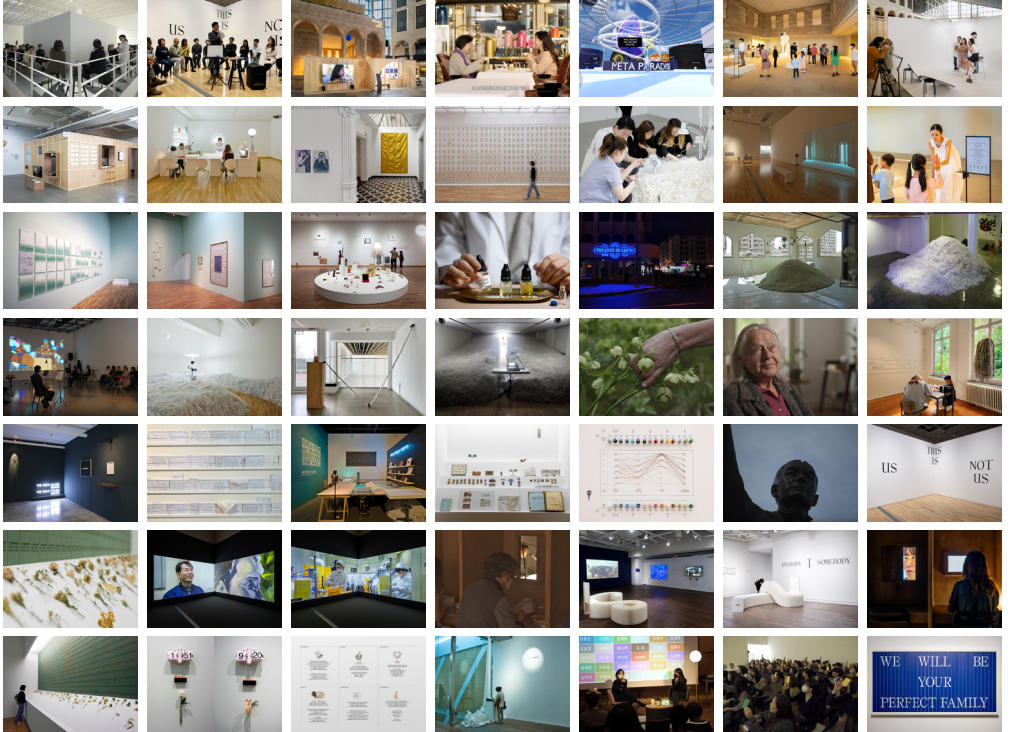
질문하는 사람



Artist Park Hyesoo: A Critical Study
A Questioner

리플릿

© 2024 Park Hyesoo and all contributing writers



김동일
문화사회학자

박혜수는 조각·설치를 기반으로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의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다학제적이고 참여적인 예술 작업을 기획하는 시각예술가이다.

김지연
미술평론가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2008~), [“꿈의 먼지”](#) (2009~2017), [“보통의 정의”](#) (2011~2021), [《Now Here is Nowhere》](#) (2016), [“우리가 모르는 우리”](#) (2017~), [《모노포비아—외로움 공포증》](#) (2022)

남웅
미술평론가

등의 전시를 통해 작가는 시간, 꿈, 보통, 집단, 관계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보편적 개념에 주목해왔다.

노명우
사회학자

가까운 이의 죽음, 국내외 레지던시에서의 체류 경험, 우연히 듣게 된 옆 테이블의 대화 등 작가가 마주했던 특정한 장면과 순간들에서 비롯된 질문은 공동체와 개인, 꿈과 현실, 삶과 죽음, 상실과 애도에 대한 작가의 깊이있는 주제의식으로 연결된다.

양윤정
아키비스트

작가에게 있어 작업 과정은 매 작업의 주제와 형식의 공간을 이루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다. 작업은 각 주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경험을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온/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응답 수집 및 분석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다학제적인 협업으로 이어진다. 인식과 경험 사이의 간극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부조리는 설치 및 영상 등으로 가시화되고 책쳐 퍼포먼스, 실험극, 토론회 및 출판 등으로 공론화된다. 관객은 작업 안에서 일정 부분 참여와 개입의 여지를 획득함으로써, 일상의 삶 속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질문하며 현실 세계의 불화를 다독이는 실존적 위안을 얻게 된다.

이경미
독립기획자

카르멘 로렌제티
볼로냐대학교 교수

발렌테인 비방크
네덜란드 마레스 디렉터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였으며, 200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로마국립미술관 등 국내외 여러 기획전과 2023년 제15회 샤르자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2014년 송은미술대상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랐다.

일러두기
프로젝트명은 큰따옴표(“”),
전시명은 겹화살괄호(⊕), 작품명은
홀화살괄호(◁)로 표기했습니다.

이 리플릿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
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자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졌나요?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어떤 꿈을 포기했나요?
"꿈의 먼지"

(당신은) '보통'이세요?
"보통의 정의"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

당신의 첫사랑은 어떠했나요?
"굿바이 투 러브"

우리 모여 살래요?
"퍼펙트패밀리 주식회사"

우리에게 몇명의 친구가 필요할까요?
"토론극장:우리_들"

박해수의 작업은 다소 평범하고 엉뚱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각 프로젝트는 길게는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여러 단계와 형식을 거치며 상호보완의 방법론적 특성을 통해 주제에 깊이를 더하고 외연이 확장된다.

작가의 주요 작업으로서 비교적 초기작에 해당하는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2008~)는 [〈Shadow Drawing〉](#)과 [애도 시리즈](#)로 파생되며 구성된다.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코로나19 유족들의 사연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 상실과 감정을 다루며 애도의 자리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총 5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프로젝트 대화' 시리즈(2009~)는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중요하다. ["꿈의 먼지"](#)(2009~2017)는 현실을 위해 포기하고 탈락한 꿈에 관한 추적을 통해 사회 속 개인들의 양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여기에 점술사와 정신과의사, 조항사 등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시간과 감정에 관해 논하는 [〈오래된 약국〉](#)(2011, 2021)이 파생된다. ["굿바이 투 러브"](#)(2013~2023)는 실연자, 공장 노동자와 네덜란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첫사랑'의 기억을 오브제와 텍스트, 인터뷰 등으로 수집하고, 개인의 기억과 감정 속에 묻어나오는 사회적 환경과 세대적 차이를 반추해본다.

["보통의 정의"](#)(2011~2021)는 사회적 표준으로서 '평균'이 가진 모순을 재조명하고 평균적인 삶을 위해 스스로 소거하고 탈락한 것들 속에서 개인들의 오늘에 주목한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2019~)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토양 아래 만들어진 집단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경험들을 담아보고자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퍼펙트패밀리 주식회사〉](#)(2019~)와 [〈토론극장:우리_들〉](#)(2019~)은 고독사 및 감정외주사회의 전망을 역할대행 서비스업체로 분하며 현실을 비평하는 가상의 리얼리티를 만들고, '편가르기', '혐오', '은둔형외톨이' 등 사회적 문제를 렉처 퍼포먼스, 실험극 등 관객 참여적인 공론장으로 만들어 토론의 자리를 모색한다. 그 외 '프로젝트 대화' 시리즈로 ["예술가로 살아남기"](#)(2010~)와 ["대화 아카이브"](#)(2008~2011) 등이 있다.

작업의 방법론은 크게 '설문조사', '연구/협업', '해석/표현', '출판/교육'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의 주제가 점차 고도화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작가는 예술가이자 리서처이자 연구자, 기획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각 과정은 전시공간에서 전시 혹은 프로젝트의 형태로 발표된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중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된다. 도출된 결과물은 이후 분석 및 주제 심화연구를 위하여 타예술가와 협업하며 다원적 예술방식의 실험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작가의 재해석이 들어간 작품은 최종 단계에서 제작되며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경우에 따라 렉처 퍼포먼스나 실험극, 출판과 같이 참여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공론장이 조성된다. ["굿바이 투 러브"](#) 프로젝트를 예로 들자면, 기획전 [〈마음현상:나와 마주하기〉](#)(부산현대미술관, 2019)가 '설문조사', [〈아트디랙:실연활용법〉](#)(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2021)은 '연구/협업'의 과정이며, 개인전 [〈모노포비아-외로움 공포증〉](#)(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2022)이 '해석/표현', 잡문집 ["굿바이 투 러브"](#)(갓고싶은책, 2023)가 '출판/교육'의 과정에 해당된다.

박혜수는 앓을 '늘 그렇고 그런' 세상살이의 늪에서 건져낸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마음의 굳은살을 도려낸다. 이렇게 찢겨지고 상처받은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된다. 박혜수의 애도작업은 그저 개인의 아픔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희생자와 관객, 시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내는 윤리의 미학적 실험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

— 김동일, 「마음을 관찰하고 공동체를 엮는 윤리의 미학적 실험 - 애도 프로젝트」

사회 아래에 깔려있는 가늘고 연약한 것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박혜수 작가의 질문은, 막연한 이상을 좇거나 적나라한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감이 아니라, 개별 존재와 소통하고 가려진 마음을 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서로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하고 마침내 연대하기 위한 것이다.

— 김지연, 「고립된 삶을 발견하고 연결 짓는 사회학적 태도의 예술 - 프로젝트 대화」

히키코모리와 공단의 노동자, 국경을 넘어온 탈북민, 무연고자들의 죽음을 수습하는 유품정리사와 장례지도사, 낙인으로부터 죽음까지도 함께할 수 없던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을 찾아다니는 시도들은 일종의 사회적 경계를 잇는 회로를 생성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은 따옴표에 묶인 추상적인 가치로부터 미끄러지고, 가치가 성립되기 위해 철저히 미끄러짐 당하는 이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며 보안을 도모한다.

— 남용, 「예술과 냉소를 관통하며 사람을 모으고 사회를 재구성하는 무용한 예술의 효능을 위하여 - 박혜수 작가론」

박혜수의 작업은 무엇이든 미술이 될 수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즉시적으로 미술을 구분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형식적 특징, 바로 세련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박혜수는 작업이 순간의 이벤트로 휘발되지 않도록 작업 하나하나를 미감을 기초로 조형하고, 배치하고, 기록한다. 박혜수의 작업에서 저자성은 단순한 촉매 역할로 축소되지 않으며, 조형성은 부수적인 것으로 격하되지 않는다. 개념의 밀도와 미학적인 고려가 윤리적 판단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

— 안진국, 「구심력과 원심력: '예술의 종말 이후' 예술의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본인이 중요한 참가자라는 인식을 통하여 주체가 되는 경험, 그리고 나를 둘러싼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관해 인식하는 것. 또한 다른 참여관객과의 협업의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관하여 사유하는 것. <토론극장: 우리_들>은 "토론연극"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관객 스스로가 현실 세계의 불화를 다독이는 실존적 위안을 얻는 일종의 배움과 경험적 지식을 만들어 가기를 독려한다.

— 이경미, 「현실 세계의 불화를 다독이는 실존적 위안인 예술 - 토론극장: 우리_들」